

#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

하 정 민\*

본 연구는 1-21차의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콕스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과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 (Heckman's two-step sample selection model)을 사용한 결과, 고소득층의 자녀는 그들의 첫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더 짧은 취업 준비기간을 가진다. 이 효과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에게 더 크게 드러난다. 또한 남성, 특히 장남이 부모소득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그들이 가계 경제에 대한 더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Heckman 모형에서는 취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첫 직장에서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취업 준비기간으로 더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 임금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이 세대에 걸쳐 전이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주요용어: 부모의 소득, 취업 준비기간, 불평등, 콕스비례위험모형,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

## 1. 서 론

첫 직장은 졸업자들에게 있어 커리어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은 첫 임금이 생애 소득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요셉, 2017; Kahn, 2010; Devereux, 2002). 그러나 직업 탐색에는 많은 양의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최근의 취업난으로 인해 소위 썩어부패족 (Parasite singles)이라 불리는,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들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Tran, 2006; Fingerman et al, 2012; 이삼식 외, 2015; 오호영, 2015). 이처럼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청년층들이 낮은 수준 일자리의 입직을 포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요셉, 2017).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득층 부모들은 자녀의 취업 탐색기간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직업탐색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하루 빨리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더 큰 압박감을 가진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녀는 낮은 유보임금을 가질 것이며, 이는 제안된 직업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Mortensen, 1986).

충분한 탐색기간이 없다면, 졸업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호와는 잘 맞지 않는 직장에 매칭이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jmha@yonsei.ac.kr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졸업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Choi, 2019; Kahn, 2010), 탐색기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미스매치 (mismatch) 또한 그들의 미래 소득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오랜 준비 및 탐색기간으로 향상된 적합성은 고임금 직업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는 불평등이 세대에 걸쳐 더 증가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고소득층의 자녀가 저소득층에 비해 더 오랫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직업 탐색 기간을 늘린다는 가설을 밝히고자 한다. 콕스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과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 (Heckman's two-step sample selection model)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해당 두 모델은 모두 절단자료(censored observation)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한 생존분석의 도구로, 후자는 준비기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 확률은 낮아지며, 즉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은 늘어난다. 둘째, 부모의 소득은 대졸자보다는 고졸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고등학생은 대학생과 달리 휴학, 졸업 유예 등으로 졸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에게 부모의 소득이 주는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모의 소득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가계 경제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첫째 아이, 특히 장남이 부모의 소득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긴 탐색기간은 첫 직장의 첫 월급은 증가시키지만 주관적인 직업 만족도는 상승시키지 못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자료설명 및 방법론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생존분석의 주요 결과를 나타내고 V장에서는 이에 대한 강건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VI장에서는 탐색 기간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VII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선행 연구

부모의 재산이 자녀가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이 부모의 교육수준 및 재산이 자녀의 교육, 소득, 그리고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Karagiannaki (2017)와 Torche and Carlos (2012)는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교육수준, 주택 보유여부와 양 (positive)의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조우현 (2004), 장기영 (2008)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수준도 높아지는 한편, 자녀의 유보임금 또한 높아지면서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화를 유발한

다고 한다. 홍민기(2017)는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근로소득 또한 높은 경향이 있으며, 정규직 비율도 높아진다고 밝힌다. 한편, Jurgen et al. (2008)은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유보임금을 높이는 반면, 그만큼 일자리 제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확률과는 큰 상관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재산이 아닌, 자녀 본인의 재산이 자신의 취업상태나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Bloemen and Stancenelli(2001)과 Alexopoulos and Gladden (2006)는 각각 독일과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이 유보임금을 높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Algan et al. (2003)의 논문은 실업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더 오랫동안 실업기간을 유지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Lentz and Tranbaes (2005)의 논문은 개인의 부가 많을수록 구직을 위한 노력을 덜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졸업 후 첫 직장까지 걸리는 기간, 즉 직업 준비기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첫 직장이 미래 소득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기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녀의 첫 취업 시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둘째, 자신의 재산과 실업기간에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본 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취업 탐색 기간의 관계를 파악하려 한다. 물론 기존 연구들 또한 교육이나 상속이라는 경로를 통해 부모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취업 준비기간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불평등이 세대에 걸쳐 전이되는 경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가 기간이라는 점에서 생존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부모의 소득이 그 기간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본 논문의 가설은 부모의 부가 자녀의 유보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편의상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을 취업 확률로 표기하겠다. 유보임금과 취업 확률 사이의 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Mortensen (1986)의 일자리 탐색 모형 (job-search model)이 주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phi = f(\theta, F(w^*)) \quad (1)$$

Mortensen의 모델에서 취업에 대한 위험비 ( $\phi$ ) 즉, 취업할 가능성은 두 가지 주요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일자리 제의 빈도 (job-offer arrival rate,  $\lambda$ )와 제안된 일자리를 받아들일 확률 ( $F(w^*)$ )이다. 높은 유보임금( $w^*$ )은 이 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취업 위험비 ( $\phi$ )를 감소시킨다. 반면, 일자리 제의 빈도 ( $\theta$ )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지닌다. 높은 빈도수는 직접적으로 취업 위험비를 증가시키지만, 간접적으로는 유보임금을 증가시켜서 위험비를 감소시킨다. 이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가

자녀의 유보임금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취업까지의 기간을 증가시킬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 III.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이용하였다. 1~21차의 가구, 개인, 직업력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소득 및 자산 변수에 대해서는 SMART KLIPS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부모의 소득을 알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데이터를 연결시켰다. 직업력 데이터로부터는 개인의 첫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졸업당시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97~2018년의 월별 청년실업률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분석 표본은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나이는 17세부터 33세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만한 사람들로 표본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정보만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졸업 후 첫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려 하기 때문에 이미 소득활동을 하다가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생존분석을 위해 패널데이터를 횡단면 데이터로 변환해야하므로 대부분의 변수들은 졸업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총 인원은 1,069명이다.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졸업과 첫 취업 사이의 기간이다. 이 정보는 모두 KLIPS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직업 탐색기간 혹은 취업 준비기간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은 그들의 마지막 학기부터 이미 취업준비를 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 6개월 전에 취업을 한 경우는 졸업 직후 취업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취업 준비기간이 5년(60개월)이 넘는 사람들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취업 의사가 없거나 그들의 정보가 이상치(outlier)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다만 이 제한을 36, 42, 48개월로 바꿔서 적용하여도 결과에 큰 변화는 없었다.

<표 1>에는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을 의미하여 첫 임금(starting wage)은 첫 번째 직장의 첫 월급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및 자가주택의 시가를 더한 값이다. 물가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 자산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은 2015년 기준 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 가치로 표현한다. 부모의 14세 무렵의 경제적 형편은 조부모의 재산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표 1>에서 제시된 변수들 외에도 거주지역<sup>1)</sup>,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 주관적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한편, 약 표본의 68%가 첫 취업의 경험이 있고, 나머지 약 32%의 사람들은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약 32%의 데이터가 우측중도절단(Right

1)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지역은 서울, 광역시, 경기도, 기타지역으로 재분류하였다.

censoring) 되어있음을 뜻한다. 이는 기간 자료의 분석에서 주로 제기되는 문제로, 조사시점에서는 이 32%의 사람들은 미취업 상태이지만, 조사 시점 이후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일으킨다.

Mortensen (1986)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취업할 가능성을 위험비 (hazard rate)로 정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로하여 생존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말한 우측중도절단 (right censor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하였다 (Cox, 1972).

$$\lambda(t) = \lambda_0(t) \times \exp(b_1x_1 + b_2x_2 + \dots + b_px_p) \quad (2)$$

식 (2)에서  $\lambda(t)$ 는 위험함수 (hazard function), 즉 시점에 취업될 확률을 의미한다.  $\lambda(t_0)$ 는 기저위험함수 (baseline hazard function)이며 이는 설명변수 ( $x_1, x_2, \dots, x_p$ )의 모두 값이 0일 때의 위험함수이다. 설명변수 ( $x_1, x_2, \dots, x_p$ )에는 앞서 제시된 설명변수들로, 부모의 소득과 자산, 부모의 교육수준, 형제의 수, 출생순서, 실업률과 다른 개인 및 가구의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 $b_1, b_2, \dots, b_p$ )는 그에 해당하는 계수를 나타낸다. 위험비 (hazard ratio)는  $\exp(b_i)$ 를 뜻하며 i번째 설명변수가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능력이나 선호는 데이터에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이용하여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거주지역과 주관적 직업가치관<sup>2)</sup>을 통해 고정효과 (fixed effect)를 추가하였다.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확률에, 즉 취업 준비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양적으로 보여준다.

---

2) 주관적 직업가치관은 설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어떤 일자리 또는 직장이 ‘좋은 일자리(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안정적인 일자리 (2)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 (3)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4) 자신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5)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6)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표 1> 주요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 (Summary statistics used in th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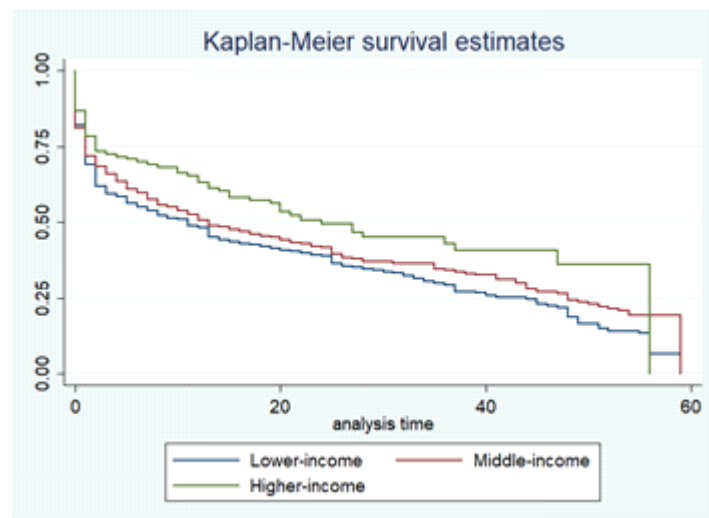
Variable	Obs	Mean	Std.Dev.	Min	Max
취업준비기간 (월)	1331	14.863	16.415	0	59
부모의 연간 근로소득 (만원)	1203	4405.009	3176.348	100	29250
부모의 자산 (만원)	1331	27955.72	44976.28	0	683000
나이	1331	22.651	2.986	17	33
% 취업자	1331	68.295	46.55		
% 여성	1331	51.841	49.985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1331	26.747	44.28		
% 2년제 졸업	1331	26.972	44.398		
% 4년제 졸업이상	1331	46.281	49.88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					
% 대졸 이상	1331	29.001	45.394		
% 중졸 이하	1331	20.586	40.448		
어머니					
% 대졸 이상	1331	15.026	35.746		
% 중졸 이하	1331	27.799	44.818		
첫 월급 (원)	1029	168.787	123.9596	39.3	2553.6
가족 구성원 수 (명)	1331	4.056	.863	2	9
형제의 수	1263	2.291	.747	1	11
출생순서	1263	1.668	.774	1	6
부모님이 14세일 때 가계 경제 상황					
아버지					
% 평균보다 낮음	1331	10.218	30.3		
% 평균보다 높음	1331	54.921	49.776		
어머니					
% 평균보다 낮음	1331	10.293	30.398		
% 평균보다 높음	1331	46.431	49.891		

주: 결측치로 인해 변수마다 관측치의 수가 다름. 본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변수에 대해서 로그값이 사용되었음.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2년제 포함)로 구분됨.

## IV.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세대 내의 소득의 차이가 자녀들의 취업 시기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단서는 [그림 1]의 소득수준에 따른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은 하위 50%, 중위 40% 그리고 상위 10%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졸업 후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확률은 고소득층의 자녀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저소득층에게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첫 취업 전 미취업 기간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by level of family income)



주: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by level of family income (n=1069). 소득계층은 하위 50%, 중위 40% 그리고 상위 10%로 나뉜다.

<표 2>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비 (hazard ratio)로 제시하고 있다. <표 2>의 (1)-(3)열에는 각각 지수생존모형 (exponential survival model), 와이블분포 생존모형 (Weibull survival model) 그리고 콕스비례위험모형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위 세 가지 모형에서의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기에 따라, 본 논문은 세 번째 모형인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결과들을 설명한다. 1보다 작은 위험비는 해당 변수의 증가가 취업할 확률을 낮춘다는 것, 즉 취업 준비기간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의 결과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을 늘린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구체적으로, 부모 소득의 약 10%의 증가는,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약 1.6%의 취업 확률 감소를 가져온다. 흥미롭게도 부모의 자산은 소득과는 다르게 자녀의 취업 확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자녀가 취업 준비기간이 있을 때, 자산보다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위험비의 추정치가 1에 매우 가깝다는 점은 자산의 효과가 굉장히 약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는 의미가 크지만, 개별 계수 해석은 다소 제한적이다.

부모의 특성이나 가족의 배경을 나타내주는 다른 변수에 대한 해석 또한 유의미하다. 아버지의 학력은 취업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Jurgen et al. (2008)이 주장하였듯, 아버지의 학력은 유보임금과 일자리 제의 빈도를 동시에 올려서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취업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 내 자녀 교육에 있어 성별 차이가 심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어머니가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조부모의 부로 인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사실을 일정 부분 암시한다 (Lee and Cho, 1999). 이 해석은 만 14세 때 어머니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들의 취업 시기를 앞당긴다는 사실과 일관성 있다.

개인의 특징들에 따른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2년제 대학교 졸업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이 취업 확률에 높은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고졸자의 아직 어린 나이로 취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한편, 대졸자는 더 높은 일자리 제의를 받기 때문에 고졸자보다 더 짧은 취업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다. 동시에, 4년제 졸업자의 경우 더 높은 유보임금을 받기 때문에 2년제 졸업자보다는 더 긴 취업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직업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전문대 성격을 띄는 2년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석이 제한적이다. 또한 여성이 더 짧은 취업 준비기간을 가지는데, 이는 그들이 남성보다 더 낮은 유보임금을 가진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Brow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졸업 당시 노동시장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졸업 6개월 전의 월별 실업률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졸업 당시의 실업률 혹은 졸업 1년 전의 실업률을 사용하여도 결과는 비슷했지만, 졸업자들에게는 졸업 6개월 전의 실업률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의 증가는 취업 준비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악조건은 졸업자들이 더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도록 만든다.



<표 2>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

	위험비 (Hazard Ratio)		
	(1) Exponential	(2) Weibull	(3) Cox PH
Log(부모 소득)	0.768*** (0.0613)	0.881** (0.0450)	0.846*** (0.0434)
Log(부모 자산)	1.063*** (0.0191)	1.040*** (0.0120)	1.043*** (0.0129)
교육 수준 (대조집단: 고졸)			
2년제 대학 졸업	2.654*** (0.528)	1.953*** (0.267)	2.190*** (0.320)
4년제 졸업이상	1.925*** (0.482)	1.844*** (0.286)	1.925*** (0.335)
여성 (대조집단: 남성)	1.253** (0.140)	1.124* (0.0765)	1.161** (0.0875)
아버지의 교육 수준 (대조집단: 고졸)			
대졸 이상	0.946 (0.126)	0.934 (0.0846)	0.941 (0.0888)
중졸 이하	1.081 (0.159)	1.066 (0.0901)	1.050 (0.0905)
어머니의 교육 수준 (대조집단: 고졸)			
대졸 이상	0.762 (0.126)	0.711*** (0.0886)	0.730** (0.0930)
중졸 이하	1.264 (0.204)	1.133 (0.107)	1.152 (0.112)
부모님이 14세일 때 가계 경제 상황			
아버지			
평균보다 낮음	0.956 (0.187)	0.983 (0.122)	0.975 (0.133)
평균보다 높음	1.146 (0.157)	1.088 (0.0939)	1.099 (0.0984)
어머니			
평균보다 낮음	1.433* (0.290)	1.282** (0.159)	1.280* (0.168)
평균보다 높음	1.061 (0.145)	1.044 (0.0903)	1.037 (0.0923)
나이	1.031 (0.0365)	0.990 (0.0207)	1.003 (0.0237)
실업률 (lagged 6 months)	0.656*** (0.0479)	0.663*** (0.0264)	0.680*** (0.0299)
Fixed effect (Career values)	Yes	Yes	Yes
Observations	1,069	1,069	1,069

주1: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

주2: 졸업연도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이용하여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함.

주3: 지역과 주관적 직업가치관에 따른 고정효과가 포함되었음.

주4: \*\*\* p<0.01, \*\* p<0.05, \* p<0.1

## V. 강건성 검정

본 연구는 부모의 소득이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가계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보임금이 낮아지고, 취업 준비기간도 늘어남을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충분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부모의 소득이 취업 준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자, 즉 부담감을 통한 경로가 설득력 있음을 보이고자 몇 가지 강건성 검정을 하려한다. 각 집단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에 성별, 출생 순서별로 샘플을 나눠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고졸자와 대졸자에게 취업 준비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깊이 뿌리박힌 유교적 전통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가계 경제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남성의 경우 가장이 되어 가계 경제에 대한 더 큰 기여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Choi et al, 2019). 이러한 이유로 남성 졸업자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낮다면 더 큰 부담감을 지닐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일부 전통적인 집안에서는 여성의 취업보다는 결혼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여성 졸업자의 졸업 후의 기간을 취업 준비기간으로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여성의 취업 자체에 대한 부담은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성별 차이를 바탕으로, <표 3>에서는 각 그룹이 부모의 소득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제시한다. 편의를 위해 다시 언급하자면, 추정된 위험비 (hazard ratio)가 1에서 멀수록 그 효과의 크기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모델(1)과 (2)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각각 남성과 여성 졸업자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영향의 크기 또한 여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전체 분석 표본을 사용했던 <표 2>의 모델(3)에서 보였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 때 더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남성이고, 부모의 소득이 낮을 때는 더 빨리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남성임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말한 부모의 소득이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본 논문에서 졸업 후 첫 직장을 가지기까지의 기간을 취업 준비기간으로 정의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과 대학교 졸업 후 기간이 지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은 휴학이나 초과학기 혹은 졸업 유예를 통해 자신이 졸업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조건이 좋지 않거나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이 외, 2017; 양정승, 2015). 부유한 집안의 자녀는 졸업 유예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취업 준비기간에 대한 정의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교육 수준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준별로 받는 영향의 차이는 <표 3>의 모델(3)과 (4)에서 나타난다. 예상하듯,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의 취업 준비기간이 부모의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소득이 많다면 더 오랜기간 미취업 상태로 머무는 집단이 고졸자이며, 반대로 소득이 적을 때는 더 빨리 취업을 하는 집단도 고졸자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고졸자에게 있어 약 10%의 부모 소득의 증가는 약 3.9%의 취업 확률 감소를 가져온다. 하지만 대졸자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졸업 유예를 감안하여도 부모의 소득이 취업 준비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암시한다.

<표 3>: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 성별, 교육 수준별

	(1)	(2)	(3)	(4)
	Male	Female	High School	College
VARIABLES				
Log (부모 소득)	0.819**	0.923	0.659***	0.876**
	(0.0679)	(0.0620)	(0.0894)	(0.0556)
Control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519	550	262	807

주1: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

주2: 졸업연도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이용하여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함.

주3: 지역과 주관적 직업가치관에 따른 고정효과가 포함되었음.

주4: 앞서 설명된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주5: \*\*\* p<0.01, \*\* p<0.05, \* p<0.1

<표 4>에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분석의 결과가 제시된다. 분석 표본을 남성 고졸자, 여성 고졸자, 남성 대졸자, 여성 대졸자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미치는 부모 소득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델(1)과 (3), 그리고 모델(2)와 (4)를 비교해보면, 고졸자가 대졸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앞선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모델(1)과 (2)를 비교해봤을 때, 고졸자 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양 집단 모두 유의미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모델 (3)과 (4)를 비교하였을 때, 대졸자의 경우 남성만이 부모의 소득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말했던 결혼과 같은 취업 외적인 요소들이 여성 고졸자나 남성 대졸자보다 여성 대졸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 성별 × 교육 수준별

	(1) HS & Male	(2) HS & Female	(3) College & Male	(4) College & Female
Log (부모 소득)	0.602** (0.124)	0.598*** (0.104)	0.816* (0.0906)	0.984 (0.0813)
Control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33	129	386	421

주1: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

주2: 졸업연도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이용하여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함.

주3: 지역과 주관적 직업가치관에 따른 고정효과가 포함되었음.

주4: 앞서 설명된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주5: \*\*\* p<0.01, \*\* p<0.05, \* p<0.1

추가적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을 유추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미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일찍 태어난 자녀가 교육에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Juho, 2014; Black et al. 2005; Booth and Kee, 2009). 이로부터, 늦게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로부터 더 적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전통적 관념에서, 첫째 특히 장남은 다음 세대의 가족 대표자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혜택을 더 받는 대신, 가족에 대해 더 큰 책임감과 부담을 견뎌야 하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자면, 자녀 중 첫째일수록 가족이 부유함으로부터는 더 큰 혜택을, 반대로 가족의 가난으로부터는 더 큰 부담을 지닐 것이다. 같은 전통적 관념에서 이러한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는 남자아이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자녀가 느끼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 및 부담감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출생순서로 샘플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 이 분석에서 외동 자녀들은 표본에서 제외를 하였는데, 우선 외동의 경우는 출생순서가 의미가 없으며, 형제의 수가 한 명이라는 점이 선택적 편향(selection bias)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의 모델 (1)과 (2)는 각각 첫째와 둘째 이상의 자녀들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다. 첫째의 위험비가 둘째에 비해 1보다 약간 더 멀리 있지만 그 차이는 미세하여 첫째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성의 결과를 본다면 출생 순서에 따라 매우 다른 크기로 부모 소득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델 (3)과 (4)에 제시되어있다. 약 10%의 부모 소득 증가는 장남에게는 약 5.9%의 취업 확률 감소 효과를, 둘째 이상의 남성에게는 2.7%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표 5>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 출생 순서별

	(1)	(2)	(3)	(4)
	첫째	둘째 이상	장남	차남 이상
Log(부모 소득)	0.785*** (0.0702)	0.806*** (0.0551)	0.528*** (0.0869)	0.751*** (0.0790)
Control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438	569	198	288

주1: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

주2: 졸업연도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을 이용하여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함.

주3: 지역과 주관적 직업가치관에 따른 고정효과가 포함되었음.

주4: 앞서 설명된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주5: 외동의 경우 샘플에서 제외되었음.

주6: \*\*\* p<0.01, \*\* p<0.05, \* p<0.1

## VI. 직업탐색 기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너무 짧은 취업 준비 혹은 직업 탐색기간은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야기시키겠지만, 과연 긴 탐색기간이 졸업자들에게 더 적합한 직업을 가져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 긴 실업기간은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졸업 직후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실업 기간이 아닌 취업 준비기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가지는 긴 취업 준비기간이 고임금 직업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분석 표본에는 약 71%의 졸업자들만 첫 직장을 가진 것으로 나오므로 노동시장 성과는 이들의 정보만을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선택적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Heckman(1979)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two-step sample selection model)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probit) 모형을 사용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inverse Mills ratio와 표본 중 절단되지 않은 자료 (uncensored observation)를 이용하여 탐색기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노동시장 성과의 지표는 월급, 회사 규모<sup>3)</sup>, 그리고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sup>4)</sup>이다. 이때 회사 규모와 일자리 만족도는 모두 범주형 종속변수이므로 2단계 추정에서는 순서형 프로빗 (ordered probit)모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에

3) 종업원 규모(범주형): 1)10명 미만 2)10~29명 3)30~99명 4)100~299명 5)300~499명 6) 500명 이상

4) 주관적 직업가치관은 설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당신의 주된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서 사용되는 통제변수는 생존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모두 동일하다. 단,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시점은 졸업시점이 아닌 취업 시점이며 사용된 통제변수는 부모의 자산과 학력, 본인의 성별, 지역, 최종학력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라 자신과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이 추가되었다.

<표 6>은 Heckman의 모형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취업 확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선 생존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모델 (1)은 취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첫 직장의 첫 월급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1년의 취업 준비기간을 가진다면 첫 월급은 4.3% 증가하게 된다. 종속변수가 개인의 삶에서 첫 직장의 첫 월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모델 (2)의 결과는 탐색기간이 첫 직장의 회사 규모와 음(negative)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속변수가 1부터 6까지의 값을 지니는 범주형 자료임을 고려할 때, 추정치의 값이 매우 작으므로 해석은 다소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탐색기간과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다. KIIPS는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이외에도 일자리의 임금, 안정성,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만족도 지표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찾아낼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긴 취업 준비기간은 일자리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지라도, 첫 월급과는 양(positive)의 관계에 있다. 인정하건대, 본 분석에서는 긴 탐색 및 준비기간이 졸업자들을 고임금 직장에 매칭되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득을 위해 자신의 취업 준비기간을 늘리는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생존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본 연구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는 더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이것이 고임금 직장에서의 취업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는 부모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탐색기간을 통해 자녀 세대로 이전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표 6>: 취업 준비기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2)	(3)
VARIABLES	Log(wage)	Firm size	Job Satisfaction
<b>Second step</b>			
취업 준비기간(월)	0.00363*** (0.00118)	-0.0102** (0.00397)	0.00295 (0.00381)
Fixed effect (Children's job)	Yes	Yes	Yes
Fixed effect (Father's job)	Yes	Yes	Yes
Controls	Yes	Yes	Yes
<b>First step</b>			
VARIABLES	Hired	Hired	Hired
Log(Parental Income)	-0.255*** (0.0862)	-0.248*** (0.0881)	-0.251*** (0.0891)
Controls	Yes	Yes	Yes
lambda	0.0544 (0.0438)		
Observations	1,059	987	951

주1: ( )안은 Standard errors임.

주2: 2단계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본인과 아버지의 직업의 고정효과가 포함됨

주3: 앞서 설명된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

주4: lambda는 추정된 inverse Mills ratio를 뜻함

주5: \*\*\* p<0.01, \*\* p<0.05, \* p<0.1

## VII. 결론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이용하여,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취업 준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Mortensen (1986)의 일자리 탐색 모형을 기반한 본 연구의 가설은,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졸업 후 미취업 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므로, 자녀의 유보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유보임금은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을 낮추며,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린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더 빠르게 취업을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가설을 지지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계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높을 것 같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강건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소득은 남성에게, 특히 장남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추가적으로 취업 준비기

간을 졸업 후 첫 직장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시기를 자신이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취업 준비기간에 주는 영향을 더 명확하며, 실증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졸업 유예가 가능한 대학생의 경우도 이 효과는 유의미하지만, 고등학생보다는 영향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결과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가계 경제에 더 빨리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더 짧은 취업 준비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본 논문은 또한 첫 직장에 대한 취업 준비기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긴 취업 준비기간은 첫 월급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지만, 개인의 직업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불평등이 세대에 걸쳐 이전되는 경로에 더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직업 탐색 혹은 취업 준비기간은 유보임금이나 가계경제의 부담감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선호와 같은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생존분석의 특성상 패널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수 없고, 그 결과 개인 단위의 고정효과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수는 물론 개인의 직업관에 대한 고정효과 및 아버지 직업에 따른 군집표준오차를 추가하였다. 둘째, 6장의 Heckman 모형의 결과로는, 긴 준비기간으로 인한 직무적합성이 첫 월급을 높이는지 아니면 높은 첫 월급을 위해 준비기간을 늘리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방향성 모두 낮은 긴 취업 준비기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가 고임금 노동시장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들은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으로 고임금 직업에 매칭되는 반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졸업 후 빠르게 직업을 구해야 하므로 저임금 일자리 제의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그들의 커리어의 첫 단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작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이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경로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세대간 이동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직업 탐색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고용장려금과 같이 취업을 조건으로 젊은 세대를 지원해주는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그들이 취업 준비기간을 짧게 가지도록 유인하기에 미스매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오호영. 2015. 「캐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이슈 브리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삼식, 최효진, & 윤홍식. (2015).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전이, 유지현, 강영민, & 박주호. (2017).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친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조우현. (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제 27.
- 양정승. (2015). 「노동시장상황과 대학생의 졸업유예 결정」. 응용경제, 17(4), 27-56.
- 한요셉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Long-Term Effects of Initial Job Placement: Implications f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for Youth). KDI Policy Study, 7.
- 홍민기(2017),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Alexopoulos, M., & Gladden, T. (2006). "Wealth, reservation wages,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in the US: evidence from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
- Algan, Y., Cheron, A., Hairault, J.-O., and F. Langot, (2003), "Wealth effect on labor market transition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6, 156-178.
- Bloemen, H., and E. Stancanelli, 2001, "Individual wealth, reservation wages, and transitions into un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400-439.
- Booth, A. L., & Kee, H. J. (2009). "Birth order matters: the effect of family size and birth order on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2), 367-397.
- Brown, S., Roberts, J., & Taylor, K. (2011). "The gender reservation wage gap: evidence from British panel data." *Economics Letters*, 113(1), 88-91.
- Choi, E. J., Choi, J., & Son, H. (2019).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Available at SSRN 3431443.
- Cox, D. R. (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 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4(2), 187-202.
- Devereux, Paul J. (2002), "The Importance of Obtaining a High Paying Job" Mimeo,

UCLA.

- Fingerman, K. L., Cheng, Y. P., Wesselmann, E. D., Zarit, S., Furstenberg, F., & Birditt, K. S. (2012). "Helicopter parents and landing pad kids: Intense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880-896.
- Heckman, J.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53-161.
- Juho Härkönen. (2014), "Birth Order Effects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Educational Transitions in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ume 30, Issue 2, April Pages 166 - 179.
- Jurgen Vanoverberghe , Dieter Verhaest , Elsy Verhofstadt & Eddy Omev (2008)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Flanders: a duration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1:4, 317-33
- Kahn, L. B. (2010).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17(2), 303-316.
- Karagiannaki, Eleni (2017) "The effect of parental wealth on children's outcome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pp. 1-27. ISSN 1569-1721
- Lentz, R. and T. Tranaes, (2005), "Job search and savings: Wealth effects and duration dependen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23, 467-489
- Lee, Y., & Cho, S. (1999).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Schooling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Korea from 1965 to 1994." *Development and Society*, 28(2), 285-312.
- Mortensen, D. (1986). "Job search and labor markets analysi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d. O. Ashenfelter and R. Layard, 849 - 919. Amsterdam: Elsevier.
- Sandra E. Black, Paul J. Devereux, Kjell G. Salvanes, "The More the Merrier? The Effect of Family Size and Birth Order on Children's Edu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ume 120, Issue 2, May 2005, Pages 669 - 700.
- Torche, Florencia & Ribeiro, Carlos. (2012). "Parental wealth and children's outcomes over the life-course in Brazil: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 10.1016/j.rssm.2011.07.002.
- Tran, M. (2006). "Unable or unwilling to leave the nest?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Japanese parasite single theories".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